희망세상 (2006년 9월호 / 48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9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미국이 책임져라

글 · 김 제 남 jnkim@greenkorea.org

지난달 11일(금)부터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의 주최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없이 미군 기지를 반환받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환경정화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전국에 90여 개가 넘는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권, 환경, 지역문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기지에서 발생한 오염은 인근 마을의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의 생명과 경작물에 크나큰 영향을 주어 왔으며, 폭격장과 공군기지 주변은 인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사고의 77%는 기름오염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주한미군이 지하 유류저장탱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지 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기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와 하천까지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예로 파주에 있는 캠프하우스에서 발생한 기름 오염사고로 기지 밖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이 기름으로 오염되어 시커멓게 썩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내어 대책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은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파주시도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미군지기에서 발생한 오염은 기지 내부는 물론 기지 밖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기지접근과 조사 그리고 한국의 환경법 적용이 불가능한 치외법권 지대로 철옹성을 쌓고 있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한 용산 미 8군 영안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그동안 쉬쉬하며 장막에 가려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분노에 떨며 항의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요구에 주한미군 환경오염 책임이 비로소 양국 사이의 협정 의제가 되었다.

영화 〈괴물〉의 배경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괴물〉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고 〈괴물〉이 태어난 원인이 되었다.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의 작품이라 개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내가 잘 아는 사건이 영화의 소재 또는 영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이 관심을 끌만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니 지나 온 미군기지 환경오염 감시운동의 역사가 시나브로 쌓이더니 모든 것이 현실인양 긴장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기름 오염사고는 논밭을 썩게 하고 지하수 오염 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은 용산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

괴물의 출현에 몇 번이고 얼굴을 감싸고 소스라쳐 놀라기도 하다 급기야 딸 현서가 괴물에 희생되는 순간 펑펑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흰눈이 곱게 내리는 한강변 작은 콘테이너 안에 일상으로 돌아 온 '가족'을 보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보았으면 좋겠다. 권력은 국민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너무나 먼 거리에서 외면하고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보고 느꼈으면 한다. 주인공 강두는 "노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없어!"라고 외친다.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만이 아는 현란한 언어와 첨단기술을 들이대며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눈귀를 막아도 강두는 '노 바이러스'라는 진실을 알았다. 그러나 권력은 딸의 생명이 위기에 놓인 급박한 진실을 말하는 국민 강두를 못난 정신병자와 바이러스 감염자로 몰아 구금하고 세균전을 치루기 위해 미국의 힘을 앞세워 '옐로우 에이전트' 독가스를 살포한다. 소수 권력과 지식인이 만든 잘못된 정보가 진실로 둔갑하여 이 땅의 어여쁜 딸과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다. 괴물은 우리 사회 안에 엄연하게 힘으로 존재하여 국민을 주눅 들게 하는 권력의 무능과 무책임 그

리고 또 다른 권력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이다.

이 사건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세상에 알린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한미간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기 위해 열정을 바친 환경운동가로서 이 영화를 즐기는 감정과 감상법은 내게 조금 남다른 것이었다.

환경주권을 포기한 국방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버려진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권을 행사하여 맥팔랜드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머리 숙여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2001년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환경법을 존중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고 약속하였다. 당시 환경단체는 '노력한다' 는 환경조항의 모호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협상 당시 외교통상부 송민순 북미국장(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SOFA 환경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불편했던 소파가 편안한 소파가 되었다.' 며 만족하였다.

2003년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돌려주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미국이 책임지고 미국 측의 비용으로 정화한다.' 고 반환기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환경기준과 비용부담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한국 정부는 '오염자 부담원칙' 을 실현하게 되었다며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6년 7월 15일, 50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우리 땅을 돌려받는 반환 미군기지의 정화책임과 환경기준을 놓고 한미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 끝에 한미당국은 19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게 왠일인가? 그동안 협상 당사자인 환경부가 주장한 오염자 부담원칙과 국내 환경기준은 오간데 없고, 6월 15일 최후통첩처럼 전달한 미 국무부차관보 롤리스의 서한에 담긴 미국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방부가 19개 기지 열쇠를 덜컥 받은 것이다. 기름범벅이 된 토양오염 그대로, 중금속과 발암물질 그대로 기지를 돌려받았다. 토양오염이 한국의 환경법 기준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기지가 있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기름층이 수 미터에 달해 환경전문가들도 유전이 발굴된 것이냐고 역설을 섞어 한탄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며 뛰어 놀 학교, 시민들이 향유할 생태공원, 알곡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풍자한 퍼포먼스

항공사진으로 본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장소

거둘 생명의 땅이 될 귀한 우리 땅을 이토록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도 분통터지는데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국방부가 환경부를 누르고 앉아 한국의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으니 '괴물'을 보며 부르르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반환 미군기지 제대로 받아야

2000년 '한강독극물 사건' 그리고 2006년 '환경오염 정화없는 반환 미군기지'. 달라진 것 없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미국의 오만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토환경을 위협할 '괴물'을 또 다시 출현시킬 수 있다. 오염정화 없이 미군기지를 돌려받은 국방부 등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환경주권은 양보해도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 협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였다. 우리의 환경법과 기준을 중심으로 만국통상법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한 환경부가 맥없이 뒤로 밀려 났다. 국방부나 환경부나 정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 〈괴물〉에서 미국의 오만이 낳은 문제를 무능하고 비밀스런 정부와 지식기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강두의 가족인 '민초'들이 해냈다. 오만한 미국의 환경오염으로부터 한국의 환경주권과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도록 한미간 환경조항을 만들어낸 힘은 민초들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테이블에 앉아 오염된 기지를 그대로 받고 알토란같은 땅 평택을 내어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국익과 동맹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 기지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돌려 줄 책임이 있다. 한미당국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으로 한미간의 형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글 사진제공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녹색연합을 창립하여 16년째 녹색생명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생명존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 생태순환형사회 건설, 녹색자치의 실현이라는 녹색강령을 만들어 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